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1월2일 주일 설교입니다.

< 하나님을 체험하기 >

시편 34:8 / 새찬송가 288장 (통일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인생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방향, 바로 세상의 줄음을 체험하기 위한 방향과 하나님의 줄으심을 체험하기 위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의 줄음과 창조주의 줄으심의 차이로, 일리와 진리의 차이, 만들어진 것의 줄음과 그 줄은 것들을 만드신 분의 줄으심의 차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인생이 말하는 온갖 주장이나 사상이나 말은 다 하나의 일리에 지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줄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줄은 것들보다 얼마나 더 줄으신 분이십니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꽃들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2. 하나님의 줄으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이 ‘성령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줄으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용서가 하나님의 정의의 진노보다 더 크고 깊으심을 체험합니다(시103:8-11),(시11:18).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방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욱 근신하고 자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줄으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주 앞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시37:24),(롬8:33-37).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엡3:18,19). 이 체험은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죽을 때 까지 그 여정이 이어집니다. 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를 복 되고 황홀하게 만들며, 은혜가 은혜를, 사랑이 사랑을, 축복이 축복을 불러일으킵니다.

3.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방향을 잡은 사람들은 세상의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상의 ‘영성’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관심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그 믿음은 영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방향을 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시34:8).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살겠다는 영성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환란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마치 순풍을 만난 배와 같이 항해하게 됩니다.

또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사41:8-10).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기 때문입니다(창32:27,28).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즉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사41:11-13).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틀어 하나님의 진선미를 추구하며 체험하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 적용 & 실천 >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 믿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영성을 사모합시다! 이를 위해 성령충만을 간구합시다!